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That Influence the Life Satisfaction of a Single Household Head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손진분*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석사 박미려**

Dept. of Family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The doctor's course : Son, Jin Boon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 Park, Mee Rye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ife satisfaction of a single household head. This study examined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single household head and analyzed the contributing factor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7th KLIPS (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the sample consisted of 241 single household heads (including 83 male household single heads and 158 female single household heads).

The statistics us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 means, standardizati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53% of the household heads were due to their spouses' death, 34% of the household heads were single due to divorce, and 13% were single for other reasons. The average age of a single household head was 51 years, and the average education level of a single household head was 9.7 years and 70% of the single household

* 주저자 : 손진분 (son4820@hanmail.net)

** 교신저자 : 박미려 (park_mr@hanmail.net)

heads were employed. Approximately 46% of the single household heads lived in small-and medium-sized cities.

Seco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income, leisure, and residence of the single household head was lower than the middle level (3.0 points), whil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relatives, and social relationships was higher than the middle level (3.0 point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single household heads in accordance with the single household head's marriage status, residence, recognition of health status, and current financial situation.

Finally, significant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single household head were gender, educational level, residence, monthly total income, satisfaction level of leisure,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was the residence.

Key Words : 한부모 가정(single-headed household), 여성 한부모 가정(female single-headed household), 남성 한부모 가정(male single-headed household),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다양한 가족유형이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결혼가치관 및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전체 가정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2000년 2.5건을 차지하였던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이처럼 높은 이혼율로 인해 2000년 6.1%를 보였던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2005년 6.7%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출현은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가족구조의 상실, 각종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상실, 이혼율의 증가 등에 의한 것이며,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 중 82%가 여성, 18%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은 여성가

구주 가정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2005)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2.8%(모자가구 10%, 부자가구 2.8%)였으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사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가구가 46.2%를 차지하였다. 또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가구도 20.5%가 되었으며, 취학자녀의 경우 가정 내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보인 가구는 10.2%였고, 특히 자녀를 유급으로 타인에게 맡겨야하는 경우 자녀 양육 및 보호에 따른 교육비 증가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엄미선·정동일, 2006에서 재인용). 이처럼 대다수의 한부모 가정은 친족과 이웃의 지원이 축소된 핵가족 하에

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도구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도 경험하게 되어, 개인 및 가족 내 적응과 상호작용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강기정, 2005; 이소희·김훈·최덕경·강기정, 2004).

그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성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여성가구주를 의존자나 수혜자 차원에서 접근하여 물질적, 경제적 원조중심의 사회 정책이나 제반 복지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성가구주와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결손, 문제, 결핍 등의 병리적 차원에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복지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사업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와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성장, 적응, 변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은 여성 한부모 가정의 빈곤상태와 극복방안에 관심을 둔 국내연구에서도 여성가구주의 취업에 초점을 둔 경제적 접근방법으로는 여성들의 자활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김수현, 2001). 그것은 대부분 여성가구주가 저학력, 사회경험의 부재,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의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생계급여지급이나 경제적 차원의 취업교육 및 창업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주요정책 목표로 세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근 연구들은 여성 한부모 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의식향상, 긍정적 자아인식 변화를 통한 대인관계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수현, 2001). 여성 한

부모 가정의 자립은 직업훈련, 취업알선이나 자활사업 참여 등과 같은 경제적 접근과 동시에 심리·정서적 접근이 결합되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송다영, 2006).

남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연구는 남성가구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이상현(1998), 문선화(1999)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양친, 남성 한부모 가정, 여성 한부모 가정을 비교하거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남성 한부모 가정은 양친가족 및 여성 한부모 가정에 비해 심리정서적 문제와 행동문제에서 심각하며, 남성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모의 부제로 집안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부모부터 충분한 지지나 애정을 받지 못해 학업성적부진이나 각종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양육지원 프로그램, 자녀 대상 상담서비스 및 성역할 학습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한부모 가정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점이나 취약점만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이 갖고 있는 내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의 문제들을 가구주와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정서적 노력 및 적응과정으로 촉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도 장점과 잠재능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제기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현은민·임보래·장경문, 2006; 강기정, 2005; 유영주·오윤자, 1990).

Stinnett & DeFrain(1985)에 의한 연구는 가족의 실패보다 가족의 성공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은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특성을 밝히고, 이것을 기초로 가족 내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와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유영주·서동인·홍숙자·전영자·이정연·오윤자·이인수,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한부모 가정의 적응력을 개발시키는 과정은 한부모 가정이 처해 있는 생활실태에 기초한 생활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와 가족구성원들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개발하고 가능한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기정, 2005).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서 생활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살펴보는 척도로서, 특히 이혼과정 및 이혼한 사람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성정현(1998)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1. 한부모 가정의 개념과 특성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인하여 남은 한쪽의 편부

와 편모 등 부모의 한쪽과 함께 살며 부모와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부자 혹은 모자 집단을 의미한다(옥선화 외, 2002; 한국여성개발원, 1998). 과거에는 편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결손, 결핍 등의 부정적 의미가 강한 편부모 대신 한쪽만 있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로서 온전하며 가득차다라는 의미의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편부모 가정보다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현은민·임보래·장경문, 2006; 매일신문 2004. 4.27자).

한부모 가정은 자녀의 보호책임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인 경우 여성 한부모 가정, 부가 주 양육자인 경우 남성 한부모 가정으로 불리우며(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 2001), 자녀양육자의 성별에 따라 한부모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적응양상, 경제적 상황, 사회심리적 상황, 자녀양육, 가사노동 상황 등이 상이하게 달라진다(오승환, 2001).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은 여성가구주 가정이다. 이러한 여성가구주 가정은 미혼이면서 젊은 독신여성에서부터 사별이나 이혼 등과 같이 혼인관계 단절로 인한 여성가구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혼인상태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범위도 20대부터 70~80대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통계청(2007)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정 중에서 여성가구주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1.9%이다. 이 중 미혼 여성가구주 가정은 전체 여성가구주 가정의 23.2%, 사별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정은 44.4%,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정은 14.4%로 여성 한부모 가정은 82%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가구주는 30대부터 50대에 걸친 중년층으로써, 전체 여성가구주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 가운데 미혼자녀

와 함께 사는 대부분의 여성가주부가 경제적 부양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제력이 약한 여성 한부모 가정은 점점 더 증가현상은 중년남성의 높은 사망률과 함께 이혼율의 급증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성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빈곤율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여성한부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데(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러한 빈곤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남편의 부재가 소득상실의 원인이 되어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부담을 갖게 된다. 게다가 가족자원체계의 감소, 노동시장전반의 성차별, 이중적인 복지체계, 사회의 부정적 인식, 주택 및 의료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송다영, 2003).

한편 남성 한부모 가정은 과거에 전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사회복지체계의 관심이나 도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일반적으로 남성 한부모 가정은 가정구조의 변화로 자녀양육, 가사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가주부는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나 생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격려나 지지가 낮아 자녀양육, 자녀교육 지도 및 가족생활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며(한국여성개발원, 2001), 직업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가사처리 미흡문제도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 및 여성가주부는 한부모 가정이 된 이후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이중역할의 부담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비

연속적 가족생활사건이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이중역할에 의한 부담은 기존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갖게 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한경혜, 1993). 이에 반해 한부모 가정이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곤란도가 감소하게 되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전춘애·박성연, 1998; 김경신·김오남, 1997).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부양자녀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복지 및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성림, 2004). 만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건강유지가 어렵고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과 복지사회화 과정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이성림, 2004).

2. 생활만족도의 개념과 특성

인간의 궁극적 가치목표는 삶의 가치와 행복의 추구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가치는 생활만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한은영, 2007). 그러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가족생활사건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만족이 저하되고 이러한 심리적 불만족은 가정생활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재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가정학뿐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에서 학문적 관심을 모은 주제이며 연구대상도 가족, 여성, 장애인, 노인 등으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시도, 2006 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생활만족도 개념을 초기에 사용한 이효재·지순·박민자(1979)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주요한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을 갖고 대체로 행복하다고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박경관(1991)은 사기, 행복도, 심리적 복지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설명해주는 개념들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생활만족도 개념을 좀 더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황정규(1997)는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생활조건이나 생활사건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정도를 생활만족도라 하였으며, 정인숙(2006)은 생활만족도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를 뜻하며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개인 자신의 유일한 기준에 따른 생활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 하였다.

국외연구에서는 Neugarten 외(1961)는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Medley(1976)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하여,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기대가 형성되며, 이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감정이라고 하였다(한은영, 2007에서 재인용).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 개념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으로써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상태이므로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개념은 한부모 가정의 가정생활사건 및 전반적 생활에서 느끼는 과거의 인식과 현재 자신의 감정 또는 태도의 만족도로 규정할 수 있다.

3.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Parker (1994)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다고 한 반면 Greene & Feld(1989)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 연령과 생활만족도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또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가 그렇지 않은 한부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기평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자기평가와 자신감이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혼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고정자·김갑숙(1992)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한편 최해경(1997)은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사별 또는 이혼의 경험을 더욱 악화시켜 우울감이 높아지고 한부모가 된 이후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 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Parker(1994)의 연구결과와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주의 결혼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Gove & Shin(1989)의 연구에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사별 또

는 기타이유에 의한 한부모 가정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김오남, 1998에서 재인용)고 하여 결혼상태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의 자녀유무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자녀가 있을 때 자녀는 한부모에게 지지원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주며, 특히 자녀와의 접촉 및 개방적 대화가 한부모의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연구결과(최해경, 1997; 한경혜, 1993; Demo & Acock, 1996)에 비추어 볼 때, 유자녀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옥선화·성미애(2004)도 자녀의 존재가 생활만족도수준을 높여주며, 자녀의 존재자체에서도 생활만족을 느낀다고 하여 유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을 보면, 한부모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박재규(2003)는 한부모의 취업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였으며, 이성림(2004)도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며, 한부모 가정이 된 후 생활의 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이소영·옥선화, 2002; McLanahan & Booth, 1989).

특히 소득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는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소득원천의 소멸이 가정해체 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에서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한부모 가정의 가계소득이 높을 때 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Simons 등(1994)의 연구결과도 같은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이전 소득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는 부모, 친구, 친척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송다영(2003)과 이은경(2000) 등의 연구와 관련지어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전소득이 많을수록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한경혜(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한부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가족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들의 정서적 및 평가적 지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김희진·이승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의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 한부모에게는 양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 및 이웃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정은 가족활동이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한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의 안정과 활발한 가족활동의 기회확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한다. 셋째,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변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의 및 측정방법
성별	1=남 0=여
혼인상태	1=이혼 2=사별 3=기타
연령	1=40세이하 2=50세이하 3=60세이하 4=61세이상
학력	1=초졸이하 2=중졸이하 3=고졸이하 5=전문대졸이상
거주지역	1=서울 2=광역시 3=중소도시
취업상태	1=취업 0=비취업
직업유형#	1=고위관리자 / 전문가 2=사무관리자 3=서비스·판매관리자 4=기능원·기계조작종사자 5=농어업 및 기타
가족수	1=2명이하 2=3명 3=4명이상
고등학생이하자녀유무	1=있다 0=없다
대학생이상자녀유무	1=있다 0=없다
자녀수	1=1명 2=2명 3=3명
건강상태 인식	1=건강이아주안좋다 2=건강하지않은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편이다 5=아주건강하다
이전소득유무	1=유 0=무
이전소득유형##	1=기초생활보호대상 2=정부보조금 3=사회단체 및 친지보조금
주택소유상태	1=자가 0=전·월세·기타
경제적 특성	
월평균가계소득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가계 총소득액(만원)
월평균가계지출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가계 지출액(만원)
월평균가계저축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가계 저축액(만원)
가계총자산	한부모 가정의 가계 총 자산액(만원)
가계총금융자산	한부모 가정의 가계 총 금융자산액(만원)
가계총실물자산	한부모 가정의 가계 총 실물자산액(만원)
가계부채	한부모 가정의 가계 총 부채액(만원)
월평균개인근로소득액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액(만원)
현재경제상태인식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생활만족도	
가족의수입만족도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여가생활만족도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주거환경만족도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가족관계만족도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친인척관계만족도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전반적생활만족도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취업유형 : 취업한 응답자의 직업유형

이전소득유형 : 이전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이전소득유형

2. 조사자료 및 분석방법

1) 조사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5,838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7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¹⁾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표본추출의 첫 단계로 자료 중 혼인상태가 이혼, 사별, 미혼, 별거인 가구주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주로 제한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 241명이며, 이 중에서 남성가구주는 83명, 여성가구주는 158명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AS/PC Statistic Program(Version 9.1)을 이용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

1) 가구주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분포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혼인상태를 보면 사별에 인한 한부모 가정이 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한부모 가정은 대부분 중소도시에 거주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학력수준은 고졸이 약 41%로 가장 많았다. 또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 중 70%는 취업하였으며, 취업한 가구주의 직업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판매종사자였다. 한부모 가정의 가족수는 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61%로 가장 많았다. 이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는 70%이상, 대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37%정도 였다.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73%정도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이거나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또 현재 경제상태인식에 대해 약 71%가 여유없다고 하였다. 한부모 가정은 약 43%가 이전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전소득의 50%는 친척·친지보조금, 38%는 정부보조금, 10%는 기초보호생활대상자에 의한 이전소득이었다.

한부모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구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이혼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사별이 65%로 가장 많아 한부모 가정의 원인이 가구주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을 보면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모두 40대에 가장

1) 조사대상인 한부모 가정은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을 추출할 수 있고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제7차 자료 KLIPS를 사용하였다.

(표 2) 가구주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일반적 특성		전체(241)		남성가구주(83)		여성가구주(158)		
		N	%	N	%	N	%	
사회 인구학적 특성	혼인상태	이혼	82	34.03	45	54.22	37	23.42
		사별	128	53.11	24	28.92	104	65.82
		기타	31	12.86	14	16.87	17	10.76
	연령	40세이하	43	17.84	11	13.25	32	20.25
		41~50세	98	40.66	40	48.19	58	36.71
		51~60세	48	19.92	18	21.69	30	18.99
		61세이상	52	21.58	14	16.87	38	24.05
	학력	초졸이하	61	25.31	13	15.56	48	30.38
		중졸	36	23.24	19	22.89	37	23.42
		고졸	99	41.08	40	48.19	59	37.34
		전문대졸이상	25	10.37	11	13.25	14	8.86
	거주지역	서울	51	21.16	17	20.48	34	21.52
		광역시	78	32.37	25	30.12	53	33.34
		중소도시	112	46.47	41	49.40	71	44.94
	취업상태	취업	168	69.71	67	80.72	101	63.92
		미취업	73	30.29	16	19.28	57	36.08
	직업유형#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12	7.64	6	10.00	6	6.19
		사무관리자	18	11.46	5	8.33	13	13.40
		서비스·판매관리자	55	35.03	6	10.00	49	50.52
		기능원·기계조작종사자	42	26.75	30	50.00	12	12.37
		농어업 및 기타	30	19.11	13	21.67	17	17.53
	가족수	2명	48	19.92	16	19.28	32	20.25
		3명	115	47.71	35	42.17	80	50.63
		4명이상	78	32.37	32	38.55	46	29.11
	고등이하 자녀유무	유	169	70.12	64	77.11	105	66.46
		무	72	29.88	19	22.89	53	33.54
대학이상 자녀유무	유	90	37.34	27	32.53	63	39.87	
	무	151	62.66	56	67.47	95	60.13	
자녀수	1명	146	60.58	55	66.27	91	57.59	
	2명	85	35.27	26	31.33	59	37.34	
	3명	10	4.15	2	2.41	8	5.06	
건강상태 인식	나쁨	64	26.55	15	26.39	49	31.01	
	보통	92	38.18	32	38.55	60	37.97	
	좋음	85	35.27	36	43.37	49	31.02	
경제적 특성	현재경제 상태인식	여유없음	172	71.67	54	65.06	118	75.15
		보통	62	25.83	26	31.33	36	22.93
		여유있음	6	2.50	3	3.61	3	1.91
	이전소득 유무	유	104	43.15	33	39.76	71	44.94
		무	137	56.85	50	60.24	87	55.06
	이전소득 유형##	기초보호생활대상	11	10.58	2	6.06	9	12.68
		정부보조금	40	38.46	18	54.55	22	30.99
		사회단체/친척친지보조금	53	50.96	13	39.39	40	56.34
	주택소유 상태	유	113	46.89	46	55.42	67	42.41
무		128	53.11	37	44.58	91	57.59	

취업유형 : 취업한 응답자의 직업유형

이전소득유형 : 이전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이전소득유형

많이 분포하였지만 40세이하의 여성가구주의 비율도 20%가 넘어 한부모 가정의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연령층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력 또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도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모두 중소도시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직업유형의 경우 남성가구주는 기능원·기계조작종사자가 약 50%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가구주는 서비스·판매관리자가 약 50%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건강상태 인식을 보면 남성가구주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가구주는 보통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현재 경제상태인식에 있어서는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모두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주택소유상태의 경우 남성가구주는 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가구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정의 비율이 높았다.

2) 가구주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수준

한부모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0세였으며, 중졸수준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의 평균가족수는 3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이하 자녀수는 평균 1.55명, 대학생이상 자녀수는 평균 1.17명, 전체 평균 자녀수는 1.4명으로 나타났다. 또 한부모 가정 가구주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가계소득은 평균 198만원, 월평균가계지출은 137만원이었으며, 월평균 가계저축이 있는 한부모 가정은 122가구로, 예적금, 연금, 보험, 계 등에 평균 60만원정도를 저축하였다. 또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은 평균 1,065만원 정도의 총자산을 보유한 반면, 부채를 가진 한부모 가정은 122가구로 평균 3,491만원의 부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총자산을 넘는 부채를 가진 한부모 가정이 많아 재정상태가 열악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취업가구주가 벌어들이는 월평균개인소득은 133만원을 차지하여 월평균가계소득액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구주가 인식하는 현재 경제상태는 낮은 편이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특성을 가구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월평균가계소득은 286만원인데 반해 여성가구주는 152만원으로 남성가구주의 53%를 차지하였고, 가계지출도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에 비해 20만원 정도 더 지출하였으며, 가계저축에 있어서는 남성가구주의 가계저축액이 여성가구주의 저축액의 2.4배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성한부모 가정의 재정상태가 남성한부모 가정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성가구주의 취업률이 여성가구주의 취업률에 비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김진희 등(2007)의 연구에서 여성가구주의 취업자는 대부분 서비스·판매 일용직으로서 저임금 직종에 몰려있어 재정상태가 남성가구주 가정보다 열악하다는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대부분의 남성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유입되고 분배되어 왔던 가정에서는 직접적인 소득상실로 이어져 남성 한부모 가정에 비해 더욱 경제적으로 열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는 현재경제상태에 대해 나쁜 편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 성별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표 3> 가구주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의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	전체(241)			남성가구주(83)			여성가구주(158)			t값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241	50.68	12.58	83	50.48	11.88	158	50.79	12.96	0.18
	학력	241	9.72	3.95	83	10.69	3.50	158	9.21	4.09	-2.80
	가족수	241	3.34	1.15	83	3.39	1.07	158	3.31	1.20	-0.44
	고등이하 자녀수	169	1.55	0.60	64	1.42	0.56	105	1.63	0.61	2.21
	대학이상 자녀수	90	1.17	0.40	27	1.19	0.40	63	1.16	0.41	-0.28
특성	자녀수	241	1.44	0.58	83	1.42	0.56	158	1.63	0.61	1.46
	건강상태인식	241	3.04	0.90	83	3.20	0.85	158	2.96	0.91	-2.06
경제적 특성 #	월평균가계소득	230	198.47	430.47	80	285.66	708.55	150	151.96	114.10	-1.68 ***
	월평균가계지출	239	137.14	71.12	83	151.04	74.97	156	129.75	68.18	-2.22
	월평균가계저축	122	60.17	145.26	40	98.75	242.8	82	41.35	45.19	-1.48 ***
	가계총자산	225	1064.72	17640.60	77	14523.08	23073.36	148	8623.88	13673.35	-2.06 ***
	가계총금융자산	124	2151.89	6384.09	45	3955.78	9976.20	79	1124.35	2111.51	-1.88 ***
	가계총실물자산	213	9989.56	17112.96	73	12880.37	22129.81	140	8482.21	13649.35	-1.55 ***
	가계부채	122	3491.39	5260.78	42	3306	6266.2	80	3588.8	4688.7	0.26 *
	월평균개인근로소득액	167	133.43	166.12	66	175.72	242.46	101	105.8	75.13	-2.27 ***
	현재경제상태인식	240	1.96	0.85	83	2.14	0.83	157	1.87	0.86	-2.45

* p < .05, *** p < .001

단위(만원) : 현재경제상태인식(점)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남성가구주 가정과 여성가구주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경제적 특성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가계저축, 가계총자산, 가계총금융자산, 가계총실물자산, 월평균개인근로소득액에서 남성 한부모 가정의 재정상태가 여성 한부모 가정에 비해 좋은 반면 여성 한부모 가정의 가계부채가 남성 한부모 가정에 비해 많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재정상태가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분석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각 하위

영역별로 파악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전체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가족의 수입만족도(2.34 점)로 불만족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낮은 여가생활(2.66점)도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2.95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관계(3.15점), 친인척관계(3.13점) 및 사회적 친분관계(3.14점)는 보통수준보다 조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전반적 생활에 대해서는 평균 2.87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아 불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수행해야 할 가정 내·외 노동 및 의무는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의 할애를 요구하여 한부모의 여유를 박탈한다는 조운숙(1993)의 연구

<표 4> 가구주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분석

생활만족도 영역(점)#	전체(241)			남성가구주(83)			여성가구주(158)			t값
	빈도	Mean	S.D.	빈도	Mean	S.D.	빈도	Mean	S.D.	
가족의 수입만족도	239	2.34	0.79	83	2.34	0.83	156	2.35	0.78	0.08
여가생활만족도	241	2.66	0.75	83	2.63	0.79	158	2.67	0.73	0.44
주거환경만족도	241	2.95	0.73	83	2.81	0.76	158	3.03	0.86	2.28
가족관계만족도	241	3.15	0.72	83	2.96	0.76	158	3.25	0.68	3.03
친인척관계만족도	241	3.13	0.60	83	3.04	0.57	158	3.18	0.61	2.67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241	3.14	0.60	83	3.00	0.58	158	3.22	0.60	2.39
전반적생활만족도	241	2.87	0.65	83	2.73	0.68	158	2.94	0.62	2.39

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결과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가족생활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중고로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 김진희(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만족도를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는 친인척관계(3.04점)와 사회적 친분관계(3.00점)에서만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가족의 수입(2.34점), 여가생활(2.63점), 주거환경(2.81점), 가족관계(2.96점)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2.73점)는 보통수준보다 낮은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여성가구주는 가족의 수입(2.35점)과 여가생활(2.67점) 그리고 전반적 생활(2.94점)에 있어서만 보통수준보다 낮은 불만족을 보였고, 주거환경(3.03점), 가족관계(3.25점), 친인척관계(3.18점), 사회적 친분관계(3.22점)는 보통수준보다 만족하였다. 특히 남성가구주의 생활만족도는 모든 하위영역과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여성가구주보다 낮아 남성가구주의 생활만족도의 불만요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 한부모 가정보다 여성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정현숙 외(1996)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써, 어머니가 자녀들과

정서적인 친밀도 및 긍정적 애착성이 높아 여성 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분석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전체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혼인상태, 거주지역, 건강상태인식, 현재경제상태인식이었다. 먼저 한부모 가정의 유형이 이혼가정인 경우에 사별이나 기타가정인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서울이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주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가구주에 비해 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식했으며, 현재경제상태에 대해 여유가 없다고 인식했을 때보다 여유가 있다고 인식한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수준을 가구주 성별에 따라 보았을 때, 남성가구주의 생활만족도는 혼인상태, 거

(표 5)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		전체(241)			남성가구주(83)			여성가구주(158)			
		Mean	F/t	D	Mean	F/t	D	Mean	F/t	D	
사회인구학적 특성	혼인상태	이혼	2.68	5.49	B	2.56	4.35	B	2.84	0.87	
		사별	2.98	**	A	3.04	*	A	2.96		
		기타	2.94		A	2.79		AB	3.06		
	연령	40세미만	2.81	0.66		2.55	1.68		2.91	0.22	
		41~50세	2.83			2.63			2.97		
		51~60세	2.96			2.89			3.00		
		61세이상	2.92			3.00			2.89		
	학력	초졸이하	2.84	2.39	B	2.62	0.18		2.89	4.76	B
		중졸	2.96		AB	2.79			3.05	**	B
		고졸	2.78		B	2.75			2.79		B
		전문대졸이상	3.12		A	2.73			3.43		A
	거주지역	서울	2.71	5.70	B	2.58	4.56		2.77	2.74	B
		광역시	2.77	**	B	2.48	*		2.91		AB
		중소도시	3.02		A	2.95			3.06		A
	취업상태	취업	2.89	1.14		2.75	-0.32		2.98	-0.95	
		미취업	2.83			2.69			2.88		
	가족수	2명	2.81	2.29		2.69	1.14		2.88	1.77	
		3명	2.81			2.62			2.89		
		4명이상	3.00			2.88			3.09		
	고등이하 자녀유무	유	2.93	0.71		2.75	-0.37		2.91	0.82	
		무	2.83			2.68			3.00		
대학이상 자녀유무	유	2.93	-1.15		2.74	-0.05		3.02	-1.20		
	무	2.83			2.73			2.89			
자녀수	1명	2.85	1.46		2.69	1.94	AB	2.95	0.42		
	2명	2.94			2.88		A	2.97			
	3명	2.60			2.00		B	2.75			
건강상태 인식	나쁨	2.66	7.51	B	2.60	1.13		2.67	9.98	C	
	보통	2.75	***	B	2.66			2.95	***	B	
	좋음	3.06		A	2.86			3.20		A	
현재경제 상태인식	여유없음	2.75	11.40		2.50	11.69	B	2.86	4.00		
	보통	3.18	***		3.19	***	A	3.16	*		
	여유있음	3.17			3.00		AB	3.33			
이전소득 유무	유	2.86	0.32		2.72	0.08		2.92	0.50		
	무	2.88			2.74			2.97			
주택소유 상태	유	2.97	-2.32		2.83	-1.36		3.07	-2.32		
	무	2.78			2.62			2.85			

* p < .05, ** p < .01, *** p < .001

주지역, 현재경제상태 인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여성가구의 생활만족도는 가구의 학력, 건강상태 인식, 현재경제상태 인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 한부모 가정을 보면 사별가정, 기타가정, 이혼가정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으로 인한 남성가구가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지 못한데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이혼 결정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낮다고 한 옥선화·성미애(2004)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남성 한부모 가정의 거주지역은 중소도시, 서울, 광역시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아졌으며 현재경제상태 인식이 낮을 때 생활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 가정에서는 여성가구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학력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상태 인식이 낮을 때 생활만족도가 낮았고 현재경제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 때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 때 소득, 건강,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Amato & Patridge(1987)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부모 여성가구의 학력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 때, 소득수준이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박영란·강철희(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4.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표 6〉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변수	전체		남성가구		여성가구		
	B	β	B	β	B	β	
성별	-0.188 *	0.091					
혼인상태(이혼)	사별	-0.229 *	0.096	-0.429 ***	0.151		
	기타	-0.562	0.131	-0.173	0.212		
학력(전문대졸이상)	초졸이하	-0.178	0.159			-0.158	0.192
	중졸	-0.086	0.151			-0.174	0.196
	고졸	-0.278 *	0.137			-0.472 *	0.182
거주지역(중소도시)	서울	0.072	0.114	-0.252	0.215		
	광역시	0.283 *	0.111	0.187	0.204		
건강상태인식	0.105 *	0.051			0.183 **	0.063	
월평균가계총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계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현재경제상태인식	0.159 *	0.053	0.321 ***	0.093	0.119 *	0.059	
상수	2.383 ***	0.229	2.348 ***	0.244	2.368 ***	0.274	
F-value	5.02 ***		5.19 ***		5.11 ***		
R-square	0.228		0.355		0.209		
Adj R-square	0.183		0.287		0.169		

* p < .05 ** p < .01 *** p < .001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때 분석 모형에는 전체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일원분산분석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구주 성별, 혼인상태, 학력, 거주지역, 건강상태인식, 월평균가계총소득, 가계총자산, 현재경제상태인식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남성 한부모 가정에서는 혼인상태, 거주지역, 월평균가계총소득, 가계총자산, 현재경제상태인식의 변수를 사용하였고, 여성 한부모 가정에서는 학력, 건강상태인식, 월평균가계총소득, 가계총자산, 현재경제상태인식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때 전제 한부모 가정, 남성 한부모 가정, 여성 한부모 가정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부록 1>, <부록 2>)와 VIF 값을 확인하였다.

먼저 전체 한부모 가정에서는 성별, 혼인상태(사별), 거주지역(광역시), 건강상태인식, 현재경제상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한부모 가정에 비해 여성 한부모 가정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여성의 생활만족도보다 높다고 한 이영민(2005)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또 혼인상태에서는 이혼에 비해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에 비해 고졸일 때, 광역시나 서울에 거주할 때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할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한부모의 건강상태와 현재경제상태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건강할수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현재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한국여성개발원(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가구주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성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혼인상태(사별), 현재경제상태인식이었으며,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학력(고졸), 건강상태인식, 현재경제상태인식이었다. 먼저 남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보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서 얻는 혜택에 대한 적응이 이혼 후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Hemstrom(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 현재경제상태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소득이 충분하여 현재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한국여성개발원(2001)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에 비해 여성 한부모 가정은 가구주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일 때보다 고졸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상태와 현재경제상태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구주가 할애하는 경제활동시간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이중역할 및 과중한 역할 때문에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이상욱(1999)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분석에 의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가족의 수입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는 보

통수준의 만족보다 다소 낮은 만족수준을 보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 친인척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는 보통수준의 만족보다 조금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특히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수준을 보았을 때 생활만족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남성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여성 한부모 가정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가족 내 구성원과의 친밀도 및 유대감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가구주가 자녀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남성 한부모를 위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남성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과 양육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혼인상태, 거주지역, 건강상태인식, 현재경제상태인식이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혼인상태에 있어서 사별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가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혼, 사별 및 기타 원인 등의 혼인상태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와 함께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심리사회적 적응훈련에 초점을 둔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가구주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에 따라, 여성가구주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학력 및 건강상태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웃 간 유대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가구주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양육 및 보육시설 등의 서비스이용과 정책지원, 건강상태가 나쁜 여성가구주 가정을 위한 가사도우미 제도의 지원사업과 확대

와 같이 가구주 성별을 고려한 한부모 가정 지원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모듈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 거주지역, 건강상태인식, 현재경제상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혼인상태, 현재경제상태인식, 여성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는 학력, 건강상태인식, 현재경제상태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를 구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성 한부모 가정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남성가구주가 경험하는 생활문제의 분석과 생활개선에 관한 프로그램, 여성 한부모 가정에서는 학력수준과 열악한 경제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제시된 혼인상태, 거주지역, 학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사대상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과 사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문제와 생활만족도, 대도시, 중소도시 및 기타 지역의 한부모 가정의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학력 및 경제상태 수준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 경험하는 생활문제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 등과 같이 조사대상의 심층적 세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이

된 사건 전후 상황관련 변수(자발적 한부모, 비자발적 한부모), 한부모 가정의 또 다른 구성원인 자녀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족관련 변수(현재 자녀와의 관계, 한부모 가정 전후의 자녀와의 관계 변화,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한 새로운 연구모형이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적 측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생활에 대한 분석은 생활상태에 대한 양적 표준과 생활만족도의 질적 표준을 포함할 때, 종속변수의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가 사회노동,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가족원간의 할애시간에 관련된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유형 참여도의 측정에서 한부모의 참여도와 한부모자녀의 참여도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와 같이 조사대상과 측정변수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2005). 여성한부모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3(9), 1-12.
- 2) 고정자, 김갑숙(1992).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1), 80-98.
- 3) 김경신, 김오남(1997). 편모가족의 스트레스와 우울. 가정과학연구 7, 35-47.
- 4) 강남식, 신은주, 성정현(2002). 여성 조건부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연구. 사회복지연구 19.
- 5) 김수현(2001). 서울시 저소득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6) 김미숙, 박민정, 이상협,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2000). 저소득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 7)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 박사논문.
- 8) 김진희(2007). 한부모적응의 영향 변인 연구 : McCubbin 의 Double ABC-X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희진, 이승미(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성취에 대한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43(1).
- 10) 매일신문(2004). 신부부 ‘편부편모 가정’ 4월 27일자.
- 11) 문선화(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 213-233.
- 12) 박영란, 강철희(1999). 저소득 모자가정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1-116.
- 13) 박재규(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 4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14) 성정현(1998).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대처전략. 한국사회복지연구 11(1), 53-78.
- 15)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95-419.
- 16) 송다영(2006).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실태와 임파워먼트 대안. 한국가족복지학 11(1), 131-154.
- 17) 엄미선, 전동일(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

- 리뷰 11, 75-108.
- 18)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 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2, 109-133
 - 19) 옥선화, 성미애, 배희분, 이재람(2002). 빈곤여성가장의 대처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224-225.
 - 20) 옥선화, 성미애(200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생활만족도와 건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11), 167-190.
 - 21) 유영주, 오윤자(1990).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2), 49-68.
 - 22) 유영주, 서동인, 홍숙자, 전영자, 이정연, 오윤자, 이인수(2000). *현대 결혼과 가족*. 서울:신광출판사.
 - 23) 이상현(1998). 편부가정의 실태와 지원방안. *보건사회연구* 18(2), 106-135.
 - 24) 이소희, 김훈, 최덕경, 강기정(2004). 가족 문제와 가족복지. 현학사.
 - 25) 이소영, 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 26) 이성림(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69-179.
 - 27) 이은경(2000). 편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28) 장혜경, 송다영, 김영란, 김정훈(2001).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정책자료.
 - 29) 전춘애, 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30) 정현숙, 이배용, 박진숙, 황은자, 이제진(1996). 여성빈곤의 실태와 극복방안. 여성학 논집, 97-237.
 - 31) 조운숙(1993). 저소득 모자가족의 빈곤원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최혜경(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37-395.
 - 33) 통계청(2007). 인구주택총조사.
 - 34) 한국여성개발원(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 35) 한국여성개발원(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36)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 문제. 서울:하우.
 - 37) 현은민, 임보래, 장경문(2006).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 38) Amato, P.(1987). Family processe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27-337.
 - 39) Demo, D, H & Acock, A. C.(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38-407.
 - 40) Gove, W. R. & Shin, Hee-Choon.(1989).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d and widow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122-144.
 - 41) Greene, R. W. & Feld, S.(1989). Social support coverage and the well-being of elderly widows and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33-52.

- 42)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1998). Windows on divorce : Before and after. *Social Science Research* 27, 329-349.
- 43) McLanahan, S., & Booth, K.(1989). Mother-only families : Problems ,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44) Parker, L.(1994). The role of workplace support in facilitating self-sufficiency among single mothers on welfare. *Family Relations* 43(2), 168-173.
- 45)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 46) Simons, R. L., Whitebeck, L.B., Bearman, J., & Conger, R. D.(1994).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by nonresidential fathers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356-374.

- 접수 일 : 2007년 7월 15일
- 심사 일 : 2007년 7월 26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8월 18일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록 1〉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1. 가족의 수입만족도	1.000						
2. 여가생활만족도	0.474 ***	1.000					
3. 주거환경만족도	0.384 ***	0.565 ***	1.000				
4. 가족관계만족도	0.226 ***	0.278 ***	0.482 ***	1.000			
5. 친인척관계만족도	0.242 ***	0.289 ***	0.509 ***	0.672 ***	1.000		
6.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0.208 ***	0.247 ***	0.411 ***	0.605 ***	0.723 ***	1.000	
7. 전반적생활만족도	0.548 ***	0.466 ***	0.567 ***	0.437 ***	0.538 ***	0.547 ***	1.000

*** p < .001

〈부록 2〉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1. 가구주연령	1.000							
2. 가족수	0.374 ***	1.000						
3. 건강상태인식	-0.377 ***	-0.070	1.000					
4. 월평균가계소득	0.133 *	0.268 ***	0.196 **	1.000				
5. 가계총자산	0.235 ***	0.192 ***	0.054	0.264 ***	1.000			
6. 현재경제상태 인식	-0.096	-0.021	0.324 ***	0.296 ***	0.245 ***	1.000		
7. 여가생활만족도	0.077	0.121	0.096	0.057	0.180 **	0.293 ***	1.000	
8. 가족관계만족도	0.078	0.098	0.171 **	0.129 *	0.141 *	0.098	0.278 ***	1.000

* p < .05 ** p < .01 *** p < .001